

#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arenting Stresses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권미경\*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 Eui Women's College

Instructor : Kwon, Me-Ky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articles on parenting stres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Between 1996 and 2010, 116 articles on parenting stress were published in 16 reliable journal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frequency, contents and methodolog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studies has increased during the years. Most studies used methods categorized as quantitative data and cross-sectional surveys.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ment scale was Abidin's Parenting Stress Index. Many were analyze by using regression. The main content of these studies were the factor related to parenting stress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parenting stress.

---

▲주요어(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es), 연구동향(research trends), 국내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 in Korea)

### I. 서론

유교적 배경을 지닌 우리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는 자녀양육을 양가적 측면에서 조망하게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새로운 가족원을 육성하는 생산적인 과정인 동시에 부모로서의 지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부모됨의 적응과정이다. 또한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김선에·한유진, 2009).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이나

압박감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권미경, 2009). 스트레스 사건은 개인이 지닌 항상성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에서 개인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스트레스 상황(Pearlin et al., 1981)이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됨으로 파생되는 여러 변화상황에서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압박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생주기를 통해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족체계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고성혜, 1994),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김기현·강희경, 1997)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한다.

자녀양육이 스트레스로 여겨지게 됨에는 양육환경으로의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핵가족 구조 안에서 부모 자신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자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가족의 기능약화로 부모 역할을

---

\* 주저자·교신저자 : 권미경 (E-mail : mkkwon@sewc.ac.kr)

배울 기회도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여성의 생산 활동참여는 어머니와 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양육을 자녀를 통한 정서적 만족이나 부모됨의 기쁨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 시간의 부족, 지출 확대, 육체적 피로 등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혁준,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김미숙 · 문혁준, 2005; 안지영, 2001; 이주리, 2008),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적, 권위적, 거부적 양육태도 및 행동을 보일 수 있다(이영미, 2009). 가정이 일차적 사회화와 기본적 애착형성의 장소임을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 도현섭, 2004; 유우영 · 이숙, 1998).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자녀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려는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 심리사회적변인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성연 · 전준애, 1996)로부터 시작하여,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민하영 · 김경화, 2005),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김기현, 2000)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상황과 관심 둔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양육환경을 조망하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들(김기현 · 조복희, 2000; 오재연 · 유구중, 2007)과 척도개발 연구(김기현 · 강희경, 1997)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학술지를 중심으로 100편을 훨씬 넘는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므로 그 선행연구들의 주제와 내용,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주제,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동학과 유아교육관련 한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발달(최미숙 · 황윤세, 2004), 유아교육 연구방법(이종희 등, 2004), 아동의 기질(천희영, 2006), 질적 연구(유수경 · 황해익, 2007), 부모-자녀(문혁준, 2008), 유아 창의성(이채호 · 최인수, 2009), 유아 또래관계(김윤희, 2010)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서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저출산 사회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대규모 한국아동패널조사가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0 가족 이상을 해마다 추적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표본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가 가능해질 것이고 관련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환경과 양육행동, 자녀의 발달 등을 다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변수이다. 더욱이 패널자료에 양육환경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까지의 양육스트레스 관련연구들의 연구 주제와 배경, 세부 관련 변인, 연구방법과 결과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앞으로 연구들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함을 통해 추후 발전적인 연구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의 연도별, 학술지별 발표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의 연구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의 연구내용 및 결과별 동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의 선정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하였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학문분야는 양육환경과 행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아동학, 가정학, 가족학,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sup>1)</sup>. 둘째, 타당하고 신뢰로운 연구들을 표집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된 총 16개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아동학회지, 인간발달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지,

1) 간호학과 특수교육학 분야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많이 논의되기는 하나 이들 분야에서는 특수 상황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어 이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유아교육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아동교육,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보육지원학회지)를 대상으로 했다. 셋째, 각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구제목에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논문을 표집하였다<sup>2)</sup>. 이상의 기준으로 학술지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현재(2010년 10월)까지 발표된 116편의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분석기준과 방법

선정된 연구들의 내용을 크게 연구의 발표동향, 연구방법론의 동향, 연구내용 및 결과의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김윤희, 2010; 문혁준, 2008; 이채호·최인수, 2009; 천희영, 2006)을 검토하여 연구발표, 연구방법론,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그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들의 양적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SPSS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발표동향을 살피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의 발표빈도가 연대와 학술지 분야별로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주요 학술지를 아동학, 발달심리학, 가정학,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연대는 국내학술지에 양육 스트레스가 처음 발표된 199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5년 단위로 나누었다.

연구방법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구성의 특성,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표집된 연구대상의 수, 연구자료의 수집방법, 연구도구의 사용, 자료의 분석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조망하는 연구대상은 부모, 부 또는 모, 부, 모, 모-자 쌍, 부-모 쌍으로 대별되었다. 양육의 대상인 자녀의 연령은 영아(3세 미만), 영유아(1세~6세), 유아(3세~6세),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구분하고 여러 연령대를 포함할 경우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수, 즉 표집크기는 50명 미만, 50명~99명으로 100명 미만은 둘로 구분하고, 100명 이상은 100명~199명, 200명~299명 등 100명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질문지, 면접, 실험, 관찰 방법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쓰인 연구들도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확인하여 국외도구, 국외도구를 수정, 국내 타당화된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양적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통계, 추리통계로 구분하고, 추리통계를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로 구분하였다. 기술통계는 빈도, 평균, 범위 등

기술통계 기법만 적용한 연구이며, 추리통계 중 모수통계는 t 검증, 단일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상관관계분석, 다분산분석(MANOVA), 중다회귀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인인 공분산구조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카이, 피셔 등 모집단이 정상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비모수통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였다.

연구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주제, 연구의 주제어(키워드),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주제와 연구문제를 확인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독립변인으로 연구되었는지 종속변인으로 연구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 고려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집단 간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분석 연구,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등으로 대별하였다. 연구의 주제어(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 1.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발표동향

양육스트레스 관련연구들을 연대별로 학술지 분야별로 발표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표 연대별로 보았을 때,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이 학술지에 처음 발표된 199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총 116편의 관련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2000년까지는 19편,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31편, 2006년에서 2010년 까지는 66편으로 편수가 늘어 점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정학 분야에서 54편이 발표되어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방법 동향분석

#### 1) 연구대상의 구성

연구대상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79편(6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와 아동을 동시에 선정한 경우가 15편(12.9%),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7편(6.0%)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는

2) 본 연구에서는 연구제목을 중심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잠재 변인이나 독립변인의 일부로 반영되었으나 연구제목에 표현되지 않은 연구들은 제외되었다.

&lt;표 1&gt; 발표 연대별, 학술지 분야별 연구의 빈도

발표연대	학술지 분야				계
	아동학, 발달심리(a)	가정학(b)	가족학(c)	유아교육·보육(d)	
1996~2000	5	12	0	2	19
2001~2005	7	15	1	8	31
2005~2010	11	27	7	21	66
계	23	54	8	31	116

- a. 아동학회지, 인간발달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b.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c.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d.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아동교육,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보육지원학회지

&lt;표 2&gt; 연구대상의 구성

연구대상	빈도(%)
모	79( 68.0)
모 +자녀(쌍)	15( 12.9)
부모	7( 6.0)
부 +모(쌍)	6( 5.2)
부	5( 4.3)
기 타	4( 3.6)
계	116(100.0)

&lt;표 3&gt;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연령대	빈도(%)
영아	13( 11.2)
영아+유아	17( 14.7)
유아	62( 53.4)
초 등	16( 13.8)
중학생	1( 0.9)
기 타	7( 6.9)
계	116(100.0)

6편(5.2%),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5편(4.3%)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교사와 조부모 등을 포함한 경우이다.

## 2)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3세 미만을 영아,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까지를 유아로 기준하여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2편(5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아와 유아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17편(14.7%), 초등학교 자녀인 경우가 16편(13.8%), 영아 자녀인 경우는 13편(11.2%), 중학생 자녀가 1편(0.9%)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여러 연령대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이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이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4&gt; 연구대상의 수

연구대상 수	빈도(%)
50명 미만	9( 7.8)
50~99명	8( 6.9)
100~199명	25( 21.6)
200~299명	43( 37.1)
300~399명	4( 3.4)
400~499명	10( 8.6)
500~599명	3( 2.6)
600~699명	6( 5.2)
700~799명	3( 2.6)
800~899명	1( 0.9)
900~999명	2( 1.7)
1000명 이상	2( 1.7)
계	116(100.0)

## 3) 연구대상의 수

연구대상의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99명이 43편(3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명~199명이 25편(21.6%), 400명~499명이 10편(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비교연구(서소희·최희선, 2008; 한선화·현온강, 2008)와 관찰(최영희, 2005)이나, 심층면접(최나야 등, 2009)의 연구대상은 50명 미만으로 연구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척도 개발 연구와 같은 1,000명이 넘는 연구들(강희정, 2003; 최정미·우희정, 2004)도 확인되었다.

## 4) 연구유형과 자료의 수집방법

연구유형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구분하여본 결과, 단 두 편의 연구만이 심층면접을 다룬 질적연구(김문정·정재원, 2010; 최나야 등, 2009)이며 114편의 연구는 양적연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방법의 활용빈도를 살펴본 결과도 <표 5>에서와 같이 질문지가 94편(8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질문지와 실험을 실시한 연구가 11편(9.4%)이 수행되었다. 그

<표 5> 자료의 수집방법

연구방법	빈도(%)
질문지	94( 81.0)
면접	2( 1.7)
질문지 +실험	11( 9.4)
질문지 +면접	4( 3.5)
질문지 +관찰	3( 2.7)
기타	2( 1.7)
계	116(100.0)

<표 6>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사용빈도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빈도(%)
PSI	44( 37.8)
PSI/SF	21( 18.1)
PDH	14( 13.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척도	13( 11.2)
PSI/ PDH	6( 5.2)
기타	16( 14.7)
계	114(100.0)

밖에도 면접, 관찰 등의 연구방법이 소수 활용되고 있었다.

5)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질적연구 두 편을 제외하고 분석대상 논문 114편의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기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였다. 총 1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를 변안하여 사용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가 44편(37.8%)이며 또 이를 줄인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도 21편(18.1%)의 연구에 사용되어 약 56%에 달하는 연구에 Abidin(1990)의 PSI가 쓰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로 14편(13.0%)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한국의 자녀양육 문화를 반영하고자 개발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도 13편(11.2%)의 연구에 쓰였다. 또 Abidin (1990)의 PSI와 Crnic과 Greenberg(1990)의 PDH를 혼용한 척도를 6편(5.2%)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기타 소수 사용된 척도로는 Pearlin과 Schooler(1978)의 Maternal Stress Inventory(MSI) 척도 3편, 목야(1982)의 척도 2편, 그 외에는 연구자가 구성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6) 연구 분석 방법의 사용빈도

양육스트레스 연구논문들의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들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연구에서도 연구문제에 따라 사용된

<표 7> 연구 분석 방법의 사용빈도(중복응답)

연구분석방법	빈도
t-test	52
ANOVA	21
ANCOVA	1
MANOVA	16
상관분석	46
회귀분석	64
요인분석	5
경로분석	5
구조분석	6

<표 8> 연구주제

연구주제	빈도(%)
변인파악/비교	25( 21.5)
관계분석	69( 59.5)
집단비교	9( 7.8)
프로그램 적용/평가	10( 8.6)
척도개발	3( 2.6)
계	116(100.0)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중복응답 처리하여 확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 연구에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64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t-test(52편), 상관분석(46편), ANOVA(21편), MANOVA(16편), 구조분석(6편), 경로분석(5편)과 요인분석(5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t-test와 상관분석은 회귀분석, 구조분석 등과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다.

3.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 동향분석

1) 연구주제

연구 주제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논문에서 독립변인으로 연구되었는지 종속변인으로 연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과 같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고려된 연구는 41편(35.3%)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 설명되는 종속변인으로 고려된 연구는 75편(64.7%)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69편(5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25편(21.5%)으로 확인되었다.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려는 프로그램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10편(8.6%), 양육스트레스를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같은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9편(7.8%)이 있었고, 양육스트레스 척도개발 연구가 3편(2.6%)으로 나타났다.

2)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주제어(key words)를 확인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가 초점을 둔 양육스트레스 관련 상황과 관심 둔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크게 나누고 중복응답 처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확인된 양육관련 상황은 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과 비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 취업관련, 장애아를 둔 경우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였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에 대한 연구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특성은 양육의 주 상호작용자인 부모와 자녀 관련 특성,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환경 관련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27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17), 양육행동(17), 자녀기질(12), 양육태도(7), 생태적 접근(6), 부 양육참여(5), 우울(5) 등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총 116편의 연구를 <표 8>의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주요결과를 확인하였다.

(1)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파악

저출산 사회로의 변화는 양육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려되는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살핀 연구들이다. 가정의 부모 자녀관계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김기현, 2000; 김기현 · 조복희, 2000; 김리진 · 윤종희, 2000; 오재연 · 유구중, 2007; 하수민 · 윤종희, 2002; 황혜원 · 나운정, 2008)가 주류를 이룬다. 취업모(김기현, 2000)와 농촌 지역 부모(오재연 · 유구중, 2007), 장애유아 어머니(황혜원 · 나운정, 2008) 등으로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연구결과는 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 심리적 안녕감 같은 어머니의 유기체 변인이 가장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과 보육에 대한 만족도 등 중간체계의 영향력도 함께 확인하여 생태적 접근이 유용함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는 취업모 개인 특성보다는 친정 어머니와의 애착, 근무조건, 융통성, 배우자 양육참여 같은 환경 체계 변인이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양적 자료의 분석으로 변인을 규명한 연구들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찾는 연구(최나야 등, 2009)도 이루어졌다.

(2)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분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등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이나 매개변인(곽금주 · 김수경, 2004; 권정윤 · 장영희, 2007; 김말경 · 박혜원, 2008)으로 고려한 연구들이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을

<표 9>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

(중복응답: 가나다 순)

양육스트레스 관련 상황	양육스트레스 관련 특성
<p><b>1) 인적 특성</b> 결혼이민 여성, 교사로서의 부모, 다문화 가정(2), 미숙아, 부모기질이, 비취업모, 연변조선족, 장애아 어머니(2), 장애 아동(2), 장애 유아, 조손가족, 초등전환, 취업모(5), 취업부모, 해체가정</p> <p><b>2) 비인적 특성</b> 놀이상황, 농촌지역(2), 독서치료, 보육시설 영아반, 부참여프로그램(2), 부모교육(2), 사교육(2), 조기교육, 조기특기교육(2), 주 5일제 수업,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지원체계, 직장보육시설, 집단미술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척도개발(2), 취업(2), 취업상태, 현실치료, ADHD(2)</p>	<p><b>1) 부모 관련 특성</b> 결혼만족도(4), 고정관념, 공감적 행동, 낙관주의, 남편의 역할 지지, 대처행동, 디스트레스, 모 기질, 모 수용거부, 배우자 지지, 부모교육 요구도(4), 부모교육 지식정도, 부모역량감, 부모역할수행, 부모역할 인식(2), 부모역할지능(2), 부모유능감, 부모의식(2), 부부갈등(2), 부부관계(2), 부부관계 만족도, 부 양육스트레스, 부 양육참여(5), 부 역할수행, 불안, 사고양식, 사회적 지지(17), 생활스트레스, 성격 특성, 스트레스 대처양식(3),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안녕감, 아버지, 양육, 양육분담(2), 양육수행, 양육신념(4), 양육유형, 양육지식(3), 양육태도(7), 양육행동(17), 양육효능감(27), 어머니 기질, 어머니 특성, 언어적 학대, 역할관, 역할만족도, 역할스트레스, 우울(5),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육아 가치관, 의사소통 지향성, 일 아버지 역할갈등, 자기 유능감, 자신감, 자아분화 수준, 자아역량인식, 자아존중감(2), 자아탄력성,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서 표현성, 정서표현행동, 정서행동문제, 체벌신념, 탄력성, 표현이휘, 현대적 양육관</p> <p><b>2) 자녀 관련 특성</b> 감성지능, 격리불안, 놀이형태, 놀이형태 발달, 문제행동(3), 사회성 발달,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5), 사회적 적응(2), 성인애착, 성취능력(2), 아동 스트레스, 아동의 성, 아동 자아효능감, 아동특성, 애착, 애착안정성, 유아행동, 자녀기질(12), 자녀성적, 자녀연령, 출생순위, 행동문제, ADHD 증상</p> <p><b>3) 부모-자녀 관련 특성</b> 모아 상호작용, 기질 조화, 기질 부조화, 신체접촉, 모-자녀 의사소통</p> <p><b>4) 환경 관련 특성</b>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보상비용, 보육만족도, 보육의 질, 사회적 양육지원, 생태적 접근(6)</p>

보이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곽금주·김수경, 2004; 문영경·민현숙, 2008)과는 정적 관련을 보이고, 양육행동(박경자·권연희, 2002)과 양육지식(김영주·송연숙, 2007; 도현심 등, 2009), 양육효능감과(김말경·박혜원, 2008; 김미숙·문혁준, 2005), 결혼만족도(전춘애·박성연, 1996)는 부적 관련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인식하는 정도도 양육스트레스의 수준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신숙재·정문자, 1998).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안지영·박성연, 2002)과 양육태도(이주리, 2008; 임지향·이홍표, 2010; 전귀연·김수경, 2005), 양육효능감(최형성·정옥분, 2005)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들은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함과 대처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들은 부부의 육아가치관의 차이가 적을수록(최정신, 2009), 어머니가 현대적 양육가치관(김혜순 등, 2005)을 가질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양육과정에 가치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을 예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유유영·이숙, 1998).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김영숙·조은영, 1996; 김현미·도현심, 2004)과 감성지능(이승은·서현, 2007), 애착형성(정운주, 2008), 자아존중감(최정미·우희정, 2004), 자기효능감(하미정·장영애, 2010)과는 부적인 관련을 보였고 자녀의 문제 행동(장희경 등, 2005)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최정미·이숙, 2005), 일상적 스트레스(하미정·장영애, 2010)와는 정적관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표현되고 이것이 자녀의 행동과 발달과 관련을 있음을 설명해준다. 또 양육의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기질과 자녀의 기질,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정서성과 활동성 등 부모역할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남혜순, 2003; 박성연·전춘애, 1996; 이수미·민하영, 2007; 조용신·정영숙, 2000; 한세영, 1995). 이는 활동적 기질을 지닌 유아일 경우 어머니들이 양육에 어려움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자녀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그 결과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성별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는 않음에 많은 결과들이 동의하고 있다.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들도 보였다. 핵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자녀성별, 연령 등은 관련을 보이지 않았고(송진숙·송진영, 2009),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김기현, 1998), 직업지위(김선애·한유진, 2009)가 높은

관련을 보임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아버지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 파트너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정·이지현, 2005; 이수미·민하영, 2007; 이정순, 2003; 한유미·오경숙, 2008)이다. 부부갈등이 자녀양육 과정에 스트레스요인이 됨을 지적한 연구(민하영·김경화, 2005; 민하영·이영미, 2009)도 있다. 이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보다 낮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모역할지지(김송이·최혜영, 2007)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도 달라짐을 보여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들로 주5일제 수업(오경숙·한유미, 2008), 조기교육, 사교육 실태(오지수·이규민·강진구, 2009), 자녀성적(정명숙, 2008) 등 학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고려되었다.

상대적으로 양육의 위험요인들을 포함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저소득층 이혼가정(한준아·박경자, 2008)의 경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보여주었고, 미숙아를 둔 어머니에 대한 연구(김경희, 2000)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낙관적 관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조복희 등, 2008)는 이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지닌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정도가 심할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정계숙·노진형, 2010), 자녀의 사회적유능감 형성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함도 보였다(신연희 등, 2010). 이런 연구결과들은 특수 변인을 지닌 상황에서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이 공통적이다.

### (3)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집단비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먼저 부모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문혁준, 2004), 해체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박정옥, 2007), 도시와 농촌지역(박정희·장영애, 2003)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결과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양육의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고 한다(오재연·유구중, 2007; 이정순, 2003). 또 다른 비교는 유아의 특성에 따른 부분으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와 장애유아를 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양연숙, 2007;

이영주·이귀옥, 1998)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송연숙과 김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 어머니 집단의 비교를 통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차이를 보여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해체가정과 장애유아를 둔 경우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집단임을 확인시켜준다. 문화집단 비교연구로 한국과 연변 조선족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 조부모들이 연변 조선족 조부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는 더 높고, 효능감은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옥경희 등, 2006).

#### (4) 양육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상담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체계적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박진옥, 2006),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장성에·유연옥, 2008), 집단상담 프로그램(한선화·현온강, 2008)등을 진행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줄어들고,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고, 현실치료 기법을 통해서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증진되었다(정미숙 등, 2010). 아버지 참여수업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역할 수행을 향상시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양진희, 2009). 집단미술치료(서소희·최외선, 2008), 독서 치료적 접근을 통한 부모교육(박상희, 2007)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 (5) 양육스트레스 척도개발

양육스트레스의 척도를 개발하는 총 3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표연도 순으로 살펴보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을 목표로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총 32문항을 구성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강희경(2003)은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를 구성하였다. '학부모 역할스트레스'와 '부모 생활 스트레스'를 하위 요인으로 도출한 24문항 척도이다. 한수진과 이지연(2009)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척도개발 연구들은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에 기초한 연구이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국내 학술지에 소개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과 내용에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함을 통해 추후 발전적인 연구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발표빈도를 살펴 본 결과 총 116편의 연구 중,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19편,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31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편으로 발표편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으로는 2000년 이후 학술지의 발간 횟수가 증가함(천희영, 2006)에 따른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학술지 분야별로는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학 분야에서 54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가족학에서 8편,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 31편, 아동학과 발달심리분야에서 23편 발표되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의 상황, 양육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더 많이 조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먼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79편으로 약 7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양육의 주 담당자가 어머니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양육의 대상인 자녀의 연령은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2편으로 절반을 넘었다. 영유아기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까지 포함하면 대략 70%에 달한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에서 연구대상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표집의 용이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기나 학령기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아동학과 유아교육관련 다른 연구 분야의 연구동향에서도 유사한 결과(한태숙 등, 2005)로 3세 미만 영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증대시킬 필요성과 함께,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부분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의 수를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200명~299명 사이가 43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비교연구와 관찰, 심층면접 등의 연구의 경우 5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1,000명이 넘는 연구들도 있었다. 이는 연구목적과 분석 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최근 요인분석,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연구들에 많은



연구대상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유형을 중심으로 보면 다른 연구주제들에서는 질적연구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는데(김윤희, 2010; 유수경·황해익, 2007) 아직까지 양육스트레스는 대부분인 112편의 연구가 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양적연구로 진행되었고 최근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나야 등, 2009)와 공동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김문정·정재원, 2010)에 대한 연구 단 두 편만이 질적연구로 확인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편중된 양적연구를 극복하는 자료수집방법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약 55%를 넘는 65편의 연구에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가 쓰였고,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도 14편(13.0%)의 연구에 사용되어 많은 연구에서 외국 척도가 번안 또는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3편의 양육스트레스 국내 척도개발 연구가 확인되어 우리 상황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이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양육환경특성과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 연구논문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하나의 연구에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그 중 회귀분석(64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t-test(52편)가 많은 취업유무, 부모 등의 집단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상관분석과 함께 회귀분석이나 구조분석에 동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내용을 연구주제와 사용된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주제는 양육스트레스와 고려되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를 연구발표시기에 따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들로부터 시작하였고, 양육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증가하면서 그 연구가 세분화되어 고려되는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매개효과 등을 확인하는 연구, 집단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로 그 흐름이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 고려된 상황 또한 유아기, 영아기, 취업모 등 양육스트레스 상황이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연구에서 아토피 자녀, ADHD 자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장애아 가정 등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연구들로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함께 연구된 특성은 양육효능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자녀기질, 양육태도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은 양육효능감은 서로 부적관련을 보이는 특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관련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이 어머니에 편중됨을 확인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아버지와 부모 쌍에 대한 비교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연구에는 연구대상 다면화가 요구된다. 양육공동책임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할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관련연구들 중에서 질적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질적연구와 양적·질적연구를 병행하는 연구들이 증가함(김윤희, 2010)을 고려할 때 양육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유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수량화하기 위해 양육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들은 영유아기 취업모와 학업을 시작하는 학동기 부모, 장애아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척도가 구성되었다.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 아버지를 위한 척도 등 자녀의 연령과 우리사회의 양육환경 특징을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도 변화한다.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자녀발달과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비교 조망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제목에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양육스트레스가 변인 명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된 연구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학위논문은 제외하여 발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중 일부는 표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양육 과정의 어려움인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선정하여 그 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발전적인 연구를 구성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8, 21-37
- 곽금주·김수경(2004). 어머니의 내적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1), 1-18.

- 권미경(2009).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와 문화적응-발달적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윤·장영희(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 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김경희(2000). 어머니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8)**, 111-124.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6-62.
-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말경·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문정·정재원(2010).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37-153.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애·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김송이·최혜영(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 김영숙·조은영(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유능성간의 관계연구. **인간발달연구**, **3**, 15-24.
- 김영주·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윤희(2010). 유아 또래관계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방법을 중심으로(1995~2009). **아동학회지**, **31(5)**, 131-150.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순·강기숙·윤영배(2005).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 147-165.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도현심·이선희·오유리·김경미·최규리·강나현(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 정도;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문영경·민현숙(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65-176.
- 문혁준(2008). 부모-자녀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아동학회지**, **29(3)**, 15-31.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하영·김경화(2005).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처 행동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27-34.
- 민하영·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경자·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서 어머니의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 양육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상희(2007). 독서치료적 접근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31.
- 박성애·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정옥(2007). 해체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5(7)**, 61-70.
-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박진옥(2006). 체계적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37-45.
- 서소희·최외선(2008). 부모교육이론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6(6)**, 61-73.

-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송진숙·송진영(2009). 만3세-5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85-205.
- 신숙제·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연희·정현희·최성열(2010).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동교육**, 19(3), 143-158.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연숙(2007).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7-26.
- 양진희(2009). 유치원의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역할 수행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6), 417-442.
- 오경숙·한유미(2008).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4(11), 107-116.
- 오재연·유구종(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 오지수·이규민·강진구(2009).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실태와 자녀 양육스트레스. **아동교육**, 18(1), 183-193.
- 옥경희·정계숙·천희영·황혜정·최성학(2006). 한국과 연변 조선족 조부모-손자녀 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25-36.
- 유수정·황혜익(2007). '유아교육연구'에 나타난 질적연구 논문의 동향분석. **유아교육연구**, 27(2), 295-321.
- 유우영·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수미·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승은·서현(2007).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27-144.
- 이영미(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 이영주·이귀옥(1998).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9(2), 19-31.
- 이정순(2003).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 이종희·조성연·김선영(2004).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 나타난 연구방법분석. **유아교육연구**, 24(7), 375-397.
- 이주리(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2), 57-71.
- 이재호·최인수(2009). 유아 창의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0(5), 1-8.
- 임지향·이홍표(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의 조절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2), 49-70.
- 장성애·유연옥(200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187-202.
- 장희경·방희정·옥정(2005).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3), 143-164.
- 전귀연·김수경(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1.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30.
- 정계숙·노진형(2010).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인간발달연구**, 17(1), 285-300.
- 정명숙(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07-121.
- 정미숙·한민경·한윤경(2010). 현실치료를 적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9(2), 229-243.
-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조복희·오세영·정자용·이형민(2008).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문제행동, 자아역량인식, 사회적 능력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6(5), 97-109.
- 조용신·정영숙(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천희영(2006). 아동의 기질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80~2004. **아동학회지**, 27(4), 17-38.
- 최나야·우현경·정현심·박혜준·이순형(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미숙 · 황운세(2004).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24(5), 187-205.
- 최영희(2005).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16(3), 75-85.
- 최정미 · 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1-9.
- 최정미 · 이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16(4), 71-81.
- 최정신(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 최형성 · 정옥분(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1), 51-67.
- 하미정 · 장영애(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학동기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21(1), 33-51.
- 하수민 · 윤종희(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 한선화 · 현온강(2008). ADHD 아동의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ADHD아동의 증상에 대한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43-55.
- 한세영 ·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 258.
- 한수진 · 이지연(2009). 장애아동 부모의 초등전환 양육스트레스 척도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18(3), 259-276.
- 한유미 · 오경숙(2008). 부부간의 부모 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19(4), 547- 558.
- 한준아 · 박경자(2008). 저소득층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 탐색: 아동의 대처전략, 부모의 양육유형,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6(8), 1-15.
- 한태숙 · 김연 · 황혜정(2005).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8.
- 황혜원 · 나윤정(2008).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7(3), 267- 280.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Pediatric Psychology Press, Charlottesville, VA.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Crr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8.
-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접수일 : 201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3월 08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05일